**삼상0912 Note**

**산당 / 호크마 주석**

성 경: [삼상9:12]주제1: [왕으로 선택된 사울]주제2: [사무엘을 찾아 나선 사울]

▶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

 '산당'(\*, 바마)은 가나안어에서 유래된 단어로서, 원뜻은 '높은 곳' 혹은 '산등성이'이다. 그런데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우상 숭배와 관련된 장소로 주로 사용되었다(레 26:30; 민 22:41; 왕상 3:2;12: 31; 15: 8; 왕하 15:4).

그것은 이방의 우상 제단이 흔히 산 중턱이나 고지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우상 숭배 장소를 높은 곳에 세우는 이유는 (1) 우상 숭배자들로 하여금 그곳을 속세와 구별된 거룩한 장소로 여기게 하며 (2) 또한 그들로 하여금, 예배 대상이 거한다고 믿어졌던 하늘과 가까이 있다고 생각토록 하려는 등의 심리적 효과를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방의 우상제단이 세워졌던 이런 산당에서는 비단 우상 숭배 행위 뿐 아니라 종교적 매춘 행위 따위의 성적 음란 행위가 수반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산당에서의 제사 의식을 엄격히 금했던 것이다 (민 33:52; 왕하 23:8).

그러나 사무엘 시대의 '산당'(山堂)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 나오는 산당의 개념과는 전혀 달랐다.

즉 사무엘 시대에는 실로에서의 성막 제사가 불가능 하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신

산당에서 종교 행위가 행해졌던 것이다(왕상 3:3, 4).

성경에서 이렇듯 성막이 아닌 곳에서의 제사 행위가 불가피했을 뿐 아니라 묵허된 시기는 (1) 성막이 설립되기 전(출 40:17), 곧 모세 이전의 족장 시대와 (2) 성막이 파괴되어 제사가 중단된 이후로부터(4:10, 11) 예루살렘 중앙 성소가 건축되기까지(왕상 6:37, 38)의 기간이다.

그러므로 이 기간에 사무엘은 고향 라마에 제단을 쌓은 것이다(7:17).

따라서 여기의 산당은 우상 숭배 의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여호와의 제단이다.